



금속 뱀

안톤 반 다이크

(Anton van Dyck, 1599~1641)

1618-20, 캔버스에 유채, 207x234cm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입당송 | 갈라 6,14 참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이요 생명이며 부활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었네.

제1독서 | 민수 21,4ㄴ-9

화답송 | 시편 78(77),1-2.34-35.36-37.38(◎ 7ㄴ)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

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

○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복음 | 요한 3,13-17

영성체송 | 요한 12,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조영식 사도요한 신부 | 제기동성당 주임

“하느님께서 세상의 악을 보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처단하지 않으시는가? 하느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과 권력, 욕망을 좇으며 거짓과 위선을 추구하고, 폭력과 살인,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며, 극심한 이기주의로 나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의 인권은 무시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질문이 하느님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완전한 존재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느님의 사랑, 정의, 자비는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평생 겸손하게 묻고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그분과 친밀함 안에서 인격적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

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자비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오는 것이고 구원이니, 파멸과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 악을 폭력과 파괴라는 악으로 되갚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자비라는 선의 길을 묻고 찾으며 추구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떳떳하게 정의를 실현하셨고,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그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

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모든 이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길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참된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중심적인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묻고 찾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구리 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한 징벌로 불 뱀을 보내셨습니다. 화가는 하늘에서 뱀이 쏟아지는 것으로 이를 묘사합니다. 모세는 뒷모습으로만 등장해 이야기의 중심인 구리 뱀을 향하도록 합니다. 또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이, 구리 뱀으로 손을 뻗는 이, 죽어가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구리 뱀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마를 짚어 고개를 들어주는 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구리 뱀은 단지 바라봄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나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수진 유스티나 | JTBC 뉴스룸 앵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신앙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건 대학을 졸업한 이후였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어머니의 몇 차례 시도와 권유가 있었지만, 놀기 바빠 예비자 교리를 받거나 빠짐없이 미사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에야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신기한 건 그때는 주변에서 아무도 저를 전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루는 예비자 교리를 받던 제게 신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 하세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문예요!” 취업처럼 피부에 와닿는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했지만,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덕이 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게 큰 위로를 주신 분입니다. 저의 조용한 삶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과정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맞나.’ 의심케 했습니다.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들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 반대편의 목소리도 너무 컸습니다. 책임을 부정하고, 아픔을 조롱하고, 참사를 정치화했습니다. 그 모습을 매일 지켜봤던 제 마음도 함께 멎들었습니다. 그때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조언을 물리치고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하시며 곡기를 끊었던 유가족의 손을 잡으셨고, 우리 사회가 온전히 품지 못한 아픔을 다독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내 탓’을 하던 그때, ‘내 탓이오.’라는 문장이 광화문에 울려 퍼졌고, 당시 비신자였던 저도 잊지 못할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이 뒤섞이고,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나의 ‘기준’ 같았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놓는 것이 ‘상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내시어 병들어가던 우리 사회를 보듬으신 건 아닐까?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님을 통해 위로 받았던 기억이 저를 하느님께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도 변했습니다. 약자를 아끼시는 교황님의 삶은 제 안에 고요히 존재했던 신앙의 씨앗을 움트게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변화를 이끌어주셨던 교황님은 몇 달 전 선종하셨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아주 중요한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움트고,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기준을 잡지 못하고 혼란해질 때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 마음 속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신 교황님을 추억하며,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문장이 교황님이 제게 남기신 유산이며, 하느님의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컷 묵상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7)

강신성 요한세례자 | 작가

죽음을 초월한 희망의 순례자 엘아자르



김영선 루시아 수녀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사도 바오로는 현세만을 위해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1코린 15,19 참조) 신앙인인 우리의 지평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현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넓은 지평으로 인해 신앙인의 선택은 종종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선택의 예를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엘아자르라고 하는 율법 학자의 선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절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임금인 안티오코스 4세의 종교 박해가 있었던 기원전 2세기였습니다. 임금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당시에 뛰어난 율법 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연로한 엘아자르도 이 박해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자 그는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며 돼지고기를 뱉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 위기를 벗어날 방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임금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받을 때 그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비할 것이니 다만 그것을 먹는 체하기만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온 율법의 전통과 젊은이들에게 나쁜 모범을 남기지 않

겠다는 결의,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심판에 대한 의식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 가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향해 그의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2마카 6,30)

엘아자르의 마지막 기도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다음 장인 마카베오기 하권 7장에서 사후 생명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하느님께 끝까지 충신했던 의인이 받게 될 상급을 희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의 희망은 그가 현세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선과 선택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희망으로 그는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엘아자르처럼 우리도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는 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될 그때에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처럼 더 이상의 고통과 수고가 없을 것이며,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참된 생명이 될 것입니다.(<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1항 참조) 이 충만한 친교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으로 초대받은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중 (종교간 대화)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지난 여름, 안동 토계리에 위치한 도산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원을 거닐다가 잠시 도산서당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안내하시던 분이 다가와 설명을 마치신 후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조복’(造福)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인복, 자식복, 건강복, 장수복, 학복, 관복 등 다양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며,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祈福)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이 말한 ‘조복’은 조금 다릅니다. 조복은 단순히 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복을 뜻합니다. 남의 허물을 전하면 그 해가 결국 내게 돌아오듯, 반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隱惡), 선행을 드러내 칭찬하면(揚善), 상대도 나를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 덕에 관계가 깊어지고, 복은 돌고 돌아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지요. 이것이 바로 ‘복을 지어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보편 성화의 소명’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제나 수도자뿐 아니라 평신도, 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모두 자기 삶에서 완덕을 지향하며, 증거와 모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고행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과 덕의 실천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은총에 협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성화의 길로 계속 열려 있는 것입니다.

유교는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수양을 통해 이루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은총에 협력하여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전통 모두 자기 수양과 성화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른 종교 전통 안에도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의 좋은 가르침을 배척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며, 우리 삶 속에서 복음과 만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차이는 차별이 아니며, 다름은 다름의 이유가 아니니까요.

오랜 인격 수양을 한 사상가의 ‘조복’이라는 두 글자는 신앙인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복을 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총에 협력하여 복을 짓는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이의 선을 드러내고, 은총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방인을 존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고, 참된 복을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교회의 심장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다



정지연 플로라 | 개포동성당

찬미 예수님! ‘젊은이들의 희년: 1004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게 크나큰 은총이었습니다. 여정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한 청년 신앙인에게 순례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의 순례는 세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는 믿음으로, 4년간 익숙했던 자리를 내려놓는 용기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희년 맞이 ‘1004 프로젝트’ 청년 대표 선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기쁨보다 앞날이 불투명한 청춘의 무게와 책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 과연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잡한 마음만큼이나 무거웠던 가방을 메고, 기대와 의심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제안의 모든 염려를 비워내고 새로운 빛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디지털의 속도에 익숙한 저에게 오랜 시간을 견뎌낸 대성전들은 처음엔 그저 거대한 유적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성문에 손을 얹었을 때, 저는 시간을 넘어선 신앙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믿음의 산이었고,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바친 ‘젊음’과 ‘눈물’이 쌓여 흐르는 은총의 강이었습니다.

특히 토르베르가타의 밤, 세상 속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외로웠을 전 세계 청년들이 거대한

연대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수만 명의 청년들이 하나의 성체 아래 침묵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광장 한가운데서 가장 깊은 고요를 만났고, 그 거룩한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청년들이 저희를 향해 “코리아!”를 외칠 때,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기대,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이어갈 한국 청년들을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하느님의 선물이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벅차오름이 교차하는 그 순간, 저는 제 작은 어깨 위에 놓인 이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묻고, 대답합니다. 순례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순례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이동’이었습니다. 불안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홀로 걷던 길에서 함께 걷는 길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던 삶에서 거룩한 책임감의 자리로 옮겨가는 ‘젊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로마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제 저의 진짜 순례는 이곳, 삶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가슴에 품은 은총의 온기를 연료 삼아, 일상이라는 순례길 위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의 삶에도 희망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추모하며



도서 《21세기 신앙인에게》

10여 년 전 즈음, 신학교에서 개최된 어느 학술회 때의 기억입니다. 신학생 스태프로 참여한 저는 교정 입구에서 VIP(귀빈)로 분류된 참가자들의 차량을 VIP들만을 위한 주차 시설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행사 전날에, VIP 참가자 중 한 명인 유경춘 주교님에 대한 주의 사항이 공지되었습니다. 개인 운전기사가 배치된 차량으로 방문하는 보통의 VIP들과 달리 유경춘 주교님은 20년이 넘는 빨간색 소형 자동차를 직접 몰고 오실 예정이니, 혹시라도 차량 상태만 보고서 VIP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여 입구에서 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주교님은 누구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짐가방을 들고 걸어서 교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언덕길을 오르시면서도 미소를 머금은 반가운 얼굴로 신학생들과 인사를 나누시던 주교님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 한 켠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봉헌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미사에서 뵈었던 티모테오 주교님의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대가 놓인 단상은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 중 극히 일부의 인원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미사가 봉헌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의자가 억지로 추가되는 모습이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사가 끝나고 단상에서 멀리 떨어진 광장 구석에서 홀로 제의를 정리하고 계시는 주교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제의를 정리하시는 주교님의 모습에서 오롯이 미사에만 집중하며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아 하는 의지를 감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경춘 주교님의 저서 《21세기 신앙인에게》는 이 같은 주교님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청 문헌 중 노동, 경제, 환경, 전쟁 문제 등에 집중한 사회 교리 문헌들을 모아서 작금의 한국 사회의 처지에 맞게 해설한 내용은, 평소 주교님께서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시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자주 찾아갔던 모습과 맞물려서, 사태를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강조되어 다가옵니다. 또 남북 분단의 현실을 생태 문제와 맞물려 분석한 내용은 미래 세대를 향한 주교님의 애뜻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21세기 신앙인들을 향한 주교님의 당부는 주교님께서 몸소 보인 삶의 태도를 보증해 주고, 또 주교님의 검소하고 겸손했던 삶의 태도는 당신이 쓴 글에 진정성을 더해 줍니다.

주교님의 빈자리가 꽤 오래도록 눈에 밟힐 것 같습니다.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추모하며, 우리 교회가 주교님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방도를 치열하게 고민하길 희망합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들을 더욱 공경하고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국 ·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구청 알림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곳: 10월 18일(토) 14시~19시30분,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여하기 참조
문의: 02)2230-2023 / 2027 서울 WYD 조직위

본당 수도자의 회년

대상: 서울대교구 본당 수도자
때: 10월 27일(월) 10시30분 / 10월 13일까지 접수
내용: 절두산 ~ 새남터 도보순례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필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20단 묵주기도와 토요 성모신심 미사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성모 신심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2026 스페인 샌티아고 순례파장: 9월 1일~13일(파장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가정의 회년 신앙 체험 수기 공모전

대상: 서울대교구에 교적을 둔 모든 신자
주제: 회년을 살며 가정 기도를 통해 경험한 신앙 체험 이야기 / 11월 2일(주일) 도착분까지 신청 마감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문의: 02)727-2062 사목국 교육지원팀

제35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공모

부문: ① 방송 영화, ② 뉴미디어, ③ 신문 잡지 출판 ④ 공연 예술 /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발표 작품 제출: 9월 30일(화)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mscm@cbck.kr)
문의: 02)460-7625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02-460-7625) www.cbck.or.kr] 참조 / 시상식: 12월 4일(목)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6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 부문: ① 장학금 지원(박사 후 과정, 석·박사 과정, 학부 재학생),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및 시노달리타스 관련 연구)
신청기간: 9월 22일~12월 12일까지
접수방법: 일반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문의: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 - 소식' 참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03년 9월 19일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37세)
- 1950년 9월 17일 이재현 요셉 신부(41세)
- 1950년 9월 17일 정진구 마티아 신부(30세)
- 1950년 9월 17일 백남창 아가페도 신부(30세)
- 1980년 9월 20일 이문근 요한 신부(62세)
- 2001년 9월 18일 임충신 마티아 신부(94세)
- 2003년 9월 18일 임세빈 요셉 신부(90세)

시복시성 기원미사(214회)

이 달의 하느님의 중 '정양목 베드로'
때, 곳: 9월 16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1481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9월 1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평양교구 대신리 본당
문의: 02)727-2420

[불꽃이 향기가 되어] 3권 집필자 공모

집필 주제: 한국평단협이 선정한 8명의 평신도의 신앙과 삶 / 모집마감: 9월 14일(주일)
방법: 한국평단협 홈페이지(www.cbck.or.kr) 공지사항 참조

'슬픔 속 희망찾기' 9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때: 9월 20일(토) 10시(자비의 기도), 10시30분(미사봉헌)
곳: 가톨릭회관1층 소성당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희정 개인전: 1전시실
최진욱 개인전: 2전시실
손경민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9월 19일(금)~28일(주일)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이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김혜선 시인), 기도학교, 성경공부(허영엽 신부), 뮤지컬(이슬), 바이올린(김수연), 심리강좌(윤제연 교수), 이탈리아어(류재미), 집단상담(최현정), 해금(정겨운), 화를 내려, 그러나 잘 내려(문종원 신부)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 · 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환경사목위원회

1) 제78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제 및 강론: 유상준 신부(중계동성당)
때, 곳: 9월 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2) 제57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땅은 누구의 것인가, 토지정의' 발제자: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
때, 곳: 9월 24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최: 환경사목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공동 주최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02)727-2277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3) 제9회 하늘땅물빛의 날

대상: 하늘땅물빛 회원(가족), 관심 교우
내용: 하늘땅물빛 부스 체험, 거리행진 및 피케팅, 파견미사 /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때, 곳: 9월 27일(토) 10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및 대성당 / 회비: 1만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 2025 명동, 겨울을 밝히다 관련 공개 입학 공고

1) (2025/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접수

(원데이) 은총의 향기: MBTI 향수 & 핸드크림 만들기 (낮반)	9월 30일(화) 14시~17시
커피향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10월 14일~11월 11일 매주(화) 14시~16시
캘리그래프와 심화한 샌티아고 순례	10월 14일~11월 11일 매주(화) 19시~21시
(원데이) 편치나들로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10월 15일(수) 14시~17시

2) (2025 명동, 겨울을 밝히다) 관련 공개 입학 공고

문의: 02)727-2047 /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참조

- ① 11월 29일(토)~2026년 1월 5일(월)까지 진행되는 'LED 장미 정원 설치, 관리'전을 공개 입학합니다
- ② 12월 24일(수)~25일(목) 중 진행되는 '라디오 공개 방송 및 미디어 파사드 설치 운영'전을 공개 입학합니다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프로그램

전례 꽃꽂이	매주(수) 10시30분~12시(기초반) 회비: 7만5천원(3개월 / 재료비 별도) 매주(금) 10시~13시(고급반) 회비: 7만5천원(3개월 / 재료비 별도)	010-5302-4593 담당 강사 (문자 문의 요망)
수어	매주(목 또는 금) 19시~21시 회비: 12만5천원(6개월)	02)995-7394 에파타성당

인준단체 알림

모임

청년 만나질 피정(선한목자예수수녀회)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 문의(접수): 010-4882-9674
 때, 곳: 9월 27일(토) 15시~19시, 서울 본원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강의·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향당(주차 가능) / 이상기

'잠시 또 멈춤' 청년 1박2일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2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9월 27일(토) 14시~28일(주일) 17시, 피정집(가평)

예수 전교회 치유 대피정

때: 9월 20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유영희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혼인재발견(르트루바이) 주말 / 문의: 02)898-2141

내용: 배우자와의 갈등 극복과 관계회복
 대상: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
 때, 곳: 9월 26일~28일(2박3일), ME만남의집(강서구)

3지구 매일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강사: 김대우 신부(요당리성지 전담, 전 수원교구 성령지도) /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 점심 무료 제공
 때, 곳: 9월 17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사제, 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생태순례 10월 1일~3일·10월 12일~14일·10월 27일~29일·11월 2일~4일·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 성지순례(추자도) 10월 16일~19일·11월 22일~25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해돋이) 12월 31일~2026년 1월 3일 / 2026년 피정 접수 중

제주 성 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들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0월 2일~4일·10월 11일~13일·11월 10일~13일·11월 24일~26일·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 체나콜로 대피정 자연순례 10월 16일~18일·10월 18일~20일, 추자도 포함 성지순례 11월 15일~18일·12월 1일~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14동작지구 성령새신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9월 16일(화) 박희전 신부 10월 21일(화) 윤민재 신부

토아을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9월 16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9월 23일 이상기 회장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정	9월 19일~20일, 11월 21일~22일
홍성남 신부	큐슈 성지 12월 1일~4일 말레이시아 배낭 2026년 1월 26일~2월 1일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길을 찾아서' 2박3일 청년 피정

잠시 멈추어, 주님께 여러분의 꿈을 여쭙보십시오
 대상: 행복을 찾는 만33세 미만 미혼 여성
 때, 곳: 10월 7일(화)~9일(목), 스승예수피정의집(여주)
 문의: 010-9816-0072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9월 19일~22일·10월 17일~20일·11월 14일~17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피정 프로그램

곳: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중동역 5분 거리)
 유튜브: 지혜의샘 북방 검색 / 문의: 010-3248-9705
 1) 7차 33일 감사 피정: 9월 22일(월) 10시~17시
 강사: 이상희 신부, 한영임 회장 / 점심 무료제공
 2) 8차 33일 감사 피정: 10월 27일(월) 10시~17시
 강사: 윤창호 신부, 한영임 회장 / 점심 무료제공

예수회센터 하루 피정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단체 환영합니다
 각 날짜별로 접수 받습니다 / center.jesuit.kr

수요	9월 24일, 10월 29일, 11월 19일, 12월 17일 19시~21시(20시30분 미사)	문의(접수): 02)3276-7733
토요	10월 11일, 11월 15일, 12월 27일	
피정	10시~15시30분(15시 미사)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외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

국내	11월 8일~10일(대구 17곳), 12월 6일~9일(부산 8곳·마산 6곳), 12월 18일~21일(대전 23곳)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11월 15일~25일	대외년 바티칸 4대문 통과·이탈리아 일대 / 회비: 515만원(대한항공)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10월 3일 10시~15시30분
은인감사 피정 (은인 및 참석을 원하는 모든 분)	9월 20일(토) 10시~16시
성모님과 함께하는 음악 피정	10월 11일(토) 10시~16시
성모님과 함께하는 무로가를 피정	10월 25일(토) 10시~16시
가톨릭서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1월 28일~30일(2박3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52기 개강

때, 곳: 10월 20일(월) 19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사이버성경학교 '희망의 회년' 이벤트

접수: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탈출기(김상우 신부) 업로드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전진상 특강-시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지?

대상: 시를 읽고 쓰기에 관심 있는 분
 강사: 홍영철 시인 / www.jiscen.or.kr
 때: 10월 15일(수)~11월 5일(수) 10시~12시(4회)
 문의: 02)726-0700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Zoom 성경통독

대상: 20세~40세 미혼 여성
 때: 매주(목) 20시~21시 / 문의: 010-9353-1773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때: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 회비 없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접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YOUCAT 가톨릭 교리 수강생 모집(그리스도 레지오회)

지도: 수도회 신부 / 문의(접수): 010-9959-8983
 때: 9월 16일부터 19시30분~20시45분
 곳: 서초동 영성센터·온라인 병행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강사: 송봉모 신부, 전삼용 신부, 김성대 신부, 박현민 신부, 이창진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때, 곳: 9월 16일·23일 (화) 12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졸업미사: 구요미 총대리 주교
 회비: 월 3만원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계좌: 신헌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 당일접수 가능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점검고시, 대입준비, 멘토링지원, 진로탐색, 자격증 취득(사진·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인 영 어휘화·토론·글쓰기·작곡 등) / 댄스지도봉사자,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365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정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모임(가톨릭성서모임)

가톨릭성서모임 그룹형 성경통독 / 문의: 02)824-4363
 접수: 가톨릭성서모임 홈페이지(www.biblemove.com)

여호수아기반 (월·화·수·주일) 오후 8시	비대면
판관기룻기반 (화·주일) 오후 8시	
로마서기반 (월·화·수·주일) 오후 8시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I(한국CLC)

때: 10월 23일~11월 13일 매주(목) 19시30분(4강)
 현장강의 또는 녹화강의 선택 / 청년 할인
 곳: 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 문의: 02)2135-9398

1강(10월 23일)	걸어다니는 동학, 장일순	한상봉 편집장
2강(10월 30일)	세상을 구원하라(영화·약속)	민병훈 영화감독
3강(11월 6일)	유교를 만난 마태오 리치	이진현 신부
4강(11월 13일)	과학의 눈, 신앙의 빛	조동원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월 29일(월)~10월 20일(월)
 전형일: 10월 25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 집 전 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삶으로서의 철학'을 통해 삶의
	영성·철학상담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모집

제12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 9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녀
봉사분야: 병원 안내 / 모집: 9월 26일(금)까지
문의(접수): 02)2258-5781, 2

아쿠아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제89회 정기연주회(11월초, 살리에리 레퀴엠 및 작곡가
별 미세레레)를 함께하실 분 / 문의: 010-5397-7387
연습: 매주(토) 15시, 명동성당 영성센터
대상: 55세 이하 성음악 합창 경력자(알토·베이스 우대)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9월 18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9월 19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본원 성당(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 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9월 15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월례 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9월 29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새남터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을 위한 현양 미사'

때, 곳: 9월 16일(화),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대성전 / 문의: 02)716-1791, 070-8672-0327

14시30분	목주기도
15시	새남터 순교자들을 위한 현양 미사 주례: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
16시30분	공연: 이 솔리스피, 양업 중창단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암환자·가족 무료 심터 지원사업

대상: 암환자, 가족(보호자)
이용기간: 최대 4박5일(월~금) / 곳: 강화도 마텔심터
전액 무료 / 문의: 032)937-7530 마텔암재단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
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동매장 '살림'

이민·유품정리,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
제품을 기증 받음 / 재활동, 환경 살림, 이웃 도움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2026년 도림동성당 혼인 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 미사를 위한 아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도마당(선택: 시간-12시·15시30분, 장소-실내·야외),
소형 혼인 미사 및 기념 미사를 위한 작고 예쁜
경당(10~20명 참석 미니웨딩) / 문의: 02)833-9439
접수: 9월 16일(화) 9시, 도림동성당 사무실(선착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회비: 상담(실습생 1만원, 전문가 5만원·8만원), 놀
이치료(실습생 1만원, 전문가 6만원)
문의: 02)3147-8814(gcounseling-center.catholic.ac.kr)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도서: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청춘이라는 레시피
때, 곳: 9월 27일(토) 14시~18시, 명동성당 코스트홀
강사: 최용감 신부, 이문수 신부
패널: 가수 김나희, 가수 하림 / 진행: 김슬에 아나운서
문의(접수): 02)945-5985(회비 없음) / 후원: 서울시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전문 심리상담치료 국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어르신케어 요양 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군중후원회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업무: 회원 전산 등록 및 정보확인 / 문의: 02)776-0457
근무기간: 10월 20일~31일(토·주일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unjong.com) 참조

신대방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우 07061,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
로 11길 14 신대방동성당 사무실) 접수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 / 문의: 02)825-2314

목동성당 방호원(관리장) 모집 / 문의: 02)2643-2212, 3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근면성실하신 분
업무: 시설관리, 방호, 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
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예: 소방안전관리자)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011, 양천구 목동
서로 271 목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jskim0724@seoul.
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근면성실한 분으로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
적인 업무(운전면허1종보통·소방안전관리자격증 소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
증 사본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9월 26일(금)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785, 서울
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쑥고개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
(uld@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873-2333

성가복지병원 직원·봉사자 모집

직원	조리원·조리사 문의: 02)940-1551 영양과, 1503 총무과
의사 봉사자	안과·피부과(의사) 봉사 의료진 문의: 02)940-1510 자원봉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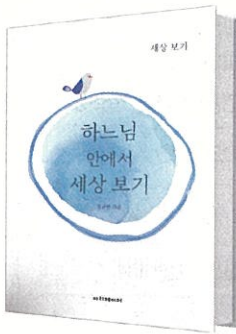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본사양식) 온라인 접수
접수: 본사 플랫폼(catholicbookplus.kr)-회사소개-
홈페이지(catholicbooks.kr)-채용정보 / 근무조건·세
부 사항은 부문별 상이하니 채용정보 반드시 확인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전문 편집
경영관리국	재무 회계, 인사기획 및 성과 관리
영업국	영업
CRM사업국	매장 판매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수시	여의대방로65(영등포구 신길6동)	0507-1306-1505 / 카카오톡 채널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성심수녀회	수시 / 개인면담	본원(8산구 원효로 19길 49)	010-5696-2331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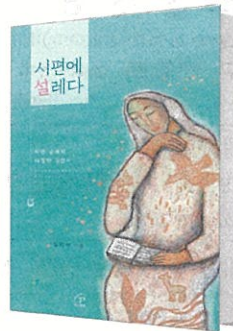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 안에서
세상 보기

정규한 지음
마리페이퍼 | 192쪽 | 2만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일상의 분주함과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이끄는 영적 안내서다. 영신수련의 지혜와 깊은 묵상을 통해, 참된 자유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이에게 이 책은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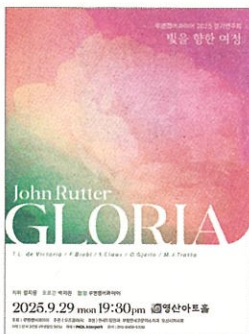


신간

시편에 설레다

임미숙 지음
바오로달 | 288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담은 시편을 저자의 깊이 있는 묵상과 삶의 체험으로 새롭게 풀어낸 묵상집이다. 슬픔과 기쁨, 탄식과 감사가 어우러진 시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며, 하느님 앞에서 있는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낸다. 시편의 생생한 울림을 통해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신앙의 본질과 깊이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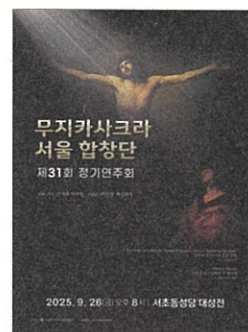


연주회

루멘챔버콰이어 2025 정기연주회
빛을 향한 여정

때, 곳: 9월 29일(월) 19시30분, 영산아트홀
입장권: 전석 3만원 / 문의: 010-6409-5330
인터파크 예매 시 서울주보할인 선택(할인 30%) 후 당일 지참

교회음악전문합창단 루멘챔버콰이어의 정기공연은 대림의 기다림과 성탄의 신비를 담은 1부와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2부로 구성된다. 정통 합창과 오르간 반주가 어우러진 무대는 성모 마리아의 잉태와 탄생의 신비를 표현하며, 구원의 빛을 향한 여정을 노래한다. 루멘챔버콰이어만의 조화로운 합창은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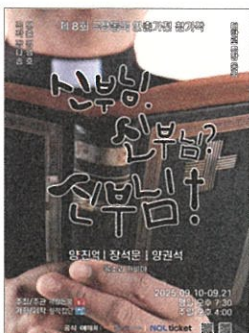


연주회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9월 26일(금) 오후 8시, 서초동성당
전석 무료 / 문의: 010-9464-0680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9월 26일(금) 오후 8시, 서초동성당에서 열린다. 순교자 성월을 맞아 신기호 신부의 지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말씀>(구노 곡)을 비롯하여 <Stabat Mater>(라인베르거 곡), 십자가를 주제로 한 다성음악 등을 연주한다.



연극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때, 곳: 9월 10일~21일 (월·화·수·목·금) 19시30분 (토·주일) 16시
입장권: 전석 3만원 / 문의: 010-3392-8324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50% 할인

연극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은 서품 25주년을 맞아 다시 모인 세 명의 신부가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와 현재를 털어놓는 이야기다. 서로의 상처와 욕망, 드러내며, 동시에 인간적인 민낯과 솔직한 마음을 나눈다. 결국 해결된 것은 없지만, 끝내 형제로 남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신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솔직한 욕망과 순수를 마주하게 된다.



콘서트

행복 찾아보기,
그래도 신앙인으로

때, 곳: 10월 19일(주일) 13시~15시30분, 청년문화공간 J1 1층 카페(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신청기한: 10월 12일(주일) 선착순 50명 마감
문의: 02)762-5071, 2 청소년국 청년부

청소년국이 주최하는 청년토크콘서트가 청년문화공간 J1 1층 카페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과 현대 철학을 통해 함께 모색한다.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성찰하며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되새기며, 청년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10월 6일 (월)	오전 7시
한가위	오전 9시
	오전 11시

-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는 10월 2일(목)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도는 미사 후에 바칩니다.

● 한가위 연휴 및 공휴일 미사

10월 3일 (금)	오전 6시, 오전 10시
10월 7일 (화)	오전 6시, 오전 10시
10월 8일 (수)	오전 6시, 오전 10시
10월 9일 (목)	오전 6시, 오전 10시

● 10월 3일 및 7일~9일 사무실 휴무입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9월 23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 명동성당 성지순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16일 1시에 「서대문우체국 중앙차선 정류장」에서 모여서 갑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9월 26일(금) 오전 10시 출발
-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구반장 회합

- 일시 : 9월 14일(주일) 12시
- 장소 : 소성전

● 남성울프레이

- 일시 : 9월 21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프레이

- 일시 : 9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오라떼(교중미사성가대) 단원 모집

- 대상 : 영세 교우 및 예비신자
- 문의 : 히아친타 단장 (010-6788-1588)



● 청년성서모임(새암성서) 가을학기 봉사자/그룹원 모집

- 대상 : 48세(1978년생) 이하 청년 누구나
- 모집기간 : ~ 9월 7일(주일) 오후 10시
- 과목 :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사도행전
- 등록/문의 : QR 코드 / 비아 대봉 (010-2550-2375)



● 청년배움터 바오로 72기 새내기 모집

-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 모집 : ~ 10월 11일(토)
- 여는마당 : 9월 14일 오후 3시
- 문의 : 큰일꾼 루치오 (010-3012-5592)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 기간 : 8월 5일(화) ~ 11월 13일(목)
-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9. 7)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8	775 (43.3%)	692 (34.5%)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연례회 감사헌금

故 황재묵 바오로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9월 1일 ~ 9월 7일)

김진웅 오만원 광선모 오천원
최경숙 일십만원 박숙희 이십만원
김영숙 오만원 오혜정 이만원
이효순 이십만원 한인경 이십만원
익명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3주일)

교무금 13,685,000원
주일헌금 5,613,500원

입당	122	봉헌	216,512,212	성체	168,169,170	파견	490
----	-----	----	-------------	----	-------------	----	-----



일 어 나 아 버 지 깨 가 리 라